

건설산업동향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민형·최윤기

2003. 4. 2

- 문제제기 3
- 국내건설부문 3
 - 최근의 국내건설 시장 현황 3
 - 이라크 전쟁의 국내 건설산업 파급 경로 4
 - 시나리오 별 파급효과 6
 - 정책적 시사점 9
- 해외건설 부문 10
 - 중동지역 진출 현황 10
 - 이라크 전쟁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11
 - 개관 11
 - 수익성 및 수주에 대한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13
 -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17

요 약

- 이라크 전쟁은 건설부문에도 중동지역의 비중이 높은 해외건설부문은 물론 국내 건설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먼저 국내 건설부문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원가 상승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간접적으로는 국내경제 부진과 국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민간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설경기의 하향속도가 둔화되고 조기에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건설경기의 하향 속도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과 북한 핵 문제가 조기에 완화되지 않는 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를 저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 정책의 논의 시점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기가 안정화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 부문의 경우 이라크 전쟁의 영향은 크게 기 수주 공사의 수익성, 이라크 미수금의 회수 여부 및 향후 해외건설 수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임.
 - 전쟁이 미국의 완전 승리로 단기간에 종결될 경우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가와 중동 및 세계 경기가 조기에 안정을 찾음으로써 해외건설의 수익성 및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나아가 이라크 복구공사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연초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현장 관련 비용의 증대와 대손의 발생 등으로 해외건설 수익성이 악화됨과 동시에 기업 내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고, 수주 감소도 불가피할 것임. 또한,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해외건설은 장기 침체 국면에 돌입할 것임.
- 정부와 기업은 먼저 단기 戰에 대비하여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리스크와 대손의 위험에 대비한 위험경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문제제기

- 금년 3월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전쟁의 흐름에 따라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유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건설산업도 중동지역의 비중이 높은 해외건설부문은 물론 국내 건설부문도 이라크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쟁의 흐름에 따라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라크 전쟁이 우리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건설부문과 해외 건설부문으로 나누어 전쟁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기업 및 정부에 대한 경영 또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라크 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경우를 가정하였음.
 - 시나리오 1 : 전쟁 조기 종결(1달 내외)
 - 시나리오 2 : 전쟁 상반기까지 지속
 - 시나리오 3 : 전쟁 6개월 이상 장기화, 아랍권 결속과 전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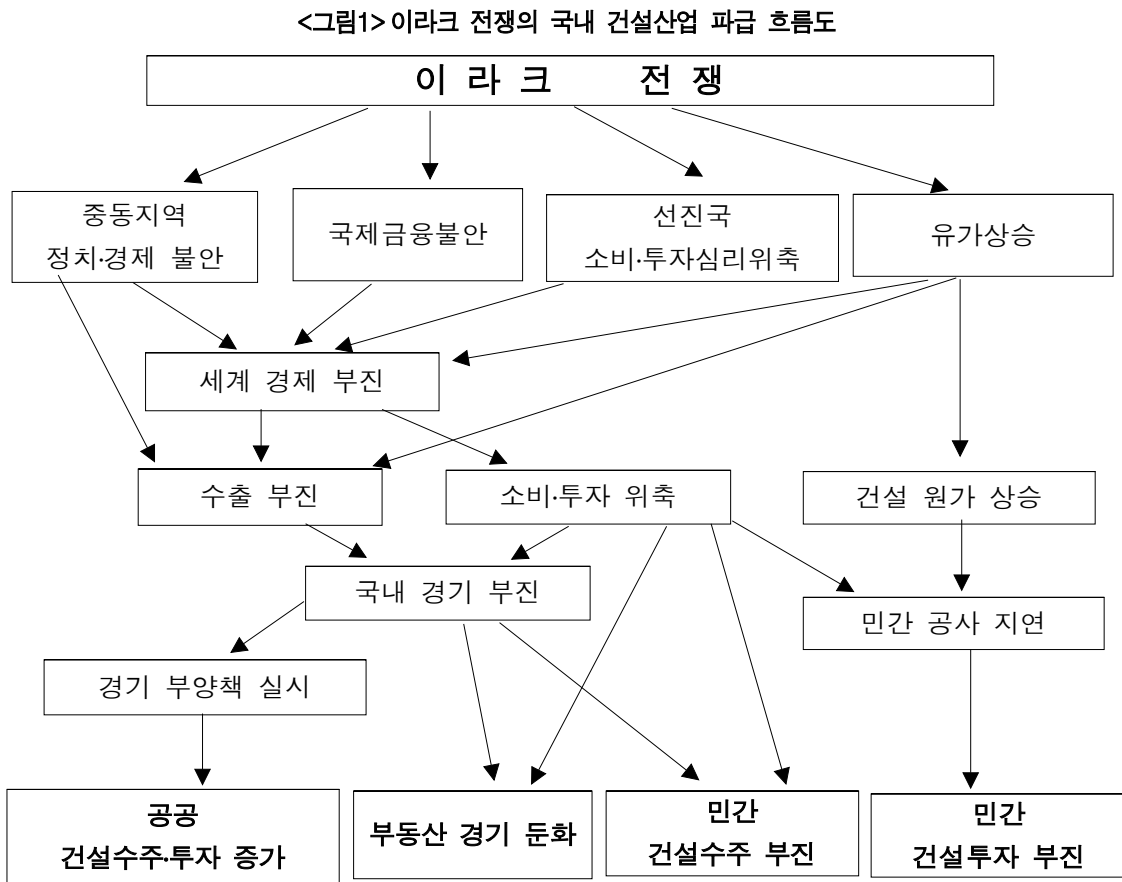
■ 국내 건설부문

최근의 국내건설 시장 현황

- 지난해 건설수주는 부동산경기 활황에 힘입은 민간 건축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22.6% 증가하였음.
-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는 부동산경기 안정과 더불어 하향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금년 2월 84.3을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100 이하를 지속하였음.
 - 다만, 건설수주가 지난해 3/4분기 3.4%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4/4분기에는 다시 20.6%나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는 건설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기 보다는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조기 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시공자 조기 선정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가운데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흐름에 따라 국내건설경기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설경기의 하향속도가 둔화되고 조기에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건설경기의 하향 속도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라크 전쟁의 국내 건설산업 파급 경로1)



1)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가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조기종결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것임.

-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가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을 들 수 있음.
 -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생산비 상승 효과는 1995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면, 원유가격 10% 상승시 건설원가 0.11%, 1998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면 0.15%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제유가는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2002년 1월 배럴당 18달러에서 2003년 2월 말 30달러 상회하였으나, 최근 26달러(3월 19일 25.99달러)로 하락하였음.
 -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원가는 2% 이하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건설 원가 상승은 건설물량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가상승을 전적으로 건설업체가 부담할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보다는 국내경제와 국내 소비·투자 심리에 미칠 악영향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에 미칠 간접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즉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는 유가상승을 유발하며, 중동지역의 정치·경제 불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선진국의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세계경제 부진을 초래하게 됨.
 - 세계경제 부진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부진과 함께 국내수출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면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됨으로써 국내경기 부진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금리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으로 상승 압력이 있으나,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상승하기 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경제 부진과 국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은 최근 들어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간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본 연구원에서는 민간·건축수주가 금년도 경기 부진, 특히 가계신용 악화에

다른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 각종 건축규제 강화와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는 물론 아파트 건설수주도 빠른 감소세로 돌아서 주택수주의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최근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부진이 심화되고, 소비·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이러한 민간 건설수주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공사의 착공 또는 공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투자의 증가세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공·토목수주 및 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금리의 경우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타 요인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임.

시나리오 별 파급 효과

<시나리오 1>

- 전쟁이 1달 내외 조기 종결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수출이 호전되면서 소비·투자 심리가 제고되어 오히려 국내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국내경제의 회복 정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 전쟁이 조기 종결되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할 것을 양국 정상이 합의하여 북한 핵 문제가 크게 완화되면 국내경제 회복과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국내 경제성장률은 5% 후반~6% 초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건설수주, 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당초 전망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수주와 투자는 경기부양책의 실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공공부문의 증가

- 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당초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민간 건설부문은 호전될 것으로 보임.
 - 당초 10% 이상의 높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민간주택 수주는 5% 이내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소비·투자심리 회복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 전체 건설수주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난 84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부동산 경기도 다소 되살아나면서 아파트가격의 경우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의지와 주식시장의 회복에 따른 유동자금의 이동을 감안해 볼 때 3% 내외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핵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 핵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여 소비 및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어 성장률은 5% 중반대로 당초 전망에 비해 소폭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수주, 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당초 전망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수주는 지난해 규모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2 >

- 금년 상반기 중에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소비·투자심리 및 수출이 악화되면서 국내경제 부진이 심화되나,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중의 경기 회복의 속도는 북한 핵문제 해결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 북한 핵문제가 하반기에 완화될 경우 하반기 중 빠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는 상반기 중에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중 빠

- 른 회복세를 나타냄으로써 연간으로는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수주는 상반기 중에 민간 건축수주를 중심으로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과 비슷한 80조 원대로 3%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가격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북한 핵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하반기 중 완만한 경기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 국내경제는 상반기 중에 경기부진이 심화된 이후 하반기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에 그쳐 연간 경제성장률 3%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 건설수주는 상반기 중 10% 이상 감소한 후 하반기에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 연간으로는 5% 내외 감소한 78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가격은 하반기 중에 소폭 상승에 그침으로써 연간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하회하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3 >

-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랍권의 결속과 전장이 확대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의 완화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면서, 유가 상승세가 크게 높아지고 세계 경제 및 국내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국내 경기 성장은 2% 내외의 성장에 그쳐 사실상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수주는 공공·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거·비주거 건축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간으로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쟁의 진행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가계신용 문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1> 시나리오별 국내 건설산업 파급효과

구분		국내경제	건설물량	부동산 가격
시나리오 1	북한 핵문제 완화	성장률 5%대 후반 ~ 6%대 초반	수주 증가율 2% 내외 (금액 84조 원대)	아파트 가격 3% 내외 상승
	북한 핵문제 지속	성장률 5%대 중반	수주 증가율 -1% 내외 (금액 82조 원대)	아파트 가격 1% 내외상승,
시나리오 2	북한 핵문제 완화	성장률 4%대	수주 증가율 -3% 금액 80조 원대	아파트 가격 1% 내외 상승
	북한 핵문제 지속	성장률 3%대 중반	수주 증가율 -5% 금액 78조 원대	아파트 가격 3% 내외 하락
시나리오 3	북한 핵문제 지속	성장률 2% 내외	건설수주 10% 이상 감소	아파트 가격 10% 이상 하락

정책적 시사점

- 시나리오별 국내경제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과 북한 핵 문제가 조기에 완화되지 않는 한 국내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부양의 수단에 있어서는 현재의 저금리 상태와 가계부채 급증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융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되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재정지출 가운데에 있어서도 건설투자는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가 커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최근 정부에서도 경기조절을 위해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은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하반기의 경기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

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으로는 많은 건설관련 정책들이 짧은 기간내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므로 국내경제 및 건설경기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정책 논의 시점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기가 안정화 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성이 있음.
- 경제의 움직임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최근의 경기 흐름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공공택지 경쟁 입찰제 실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 실시 등과 같은 건설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기구의 활성화라는 원칙적인 점만이 부각된 채 많은 논쟁이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정책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정비 작업과 보완책이 필요함.
- 더욱이 최근의 건설 및 국내경기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정책제시의 시점과 논의 절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경기를 저해할 수 있는 정책의 논의 시점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경기가 안정 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건설 부문

중동지역 진출 현황

- 중동지역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2년 총 해외건설의 약 50%(금액기준)을 차지하였으며, 2003년 3월 20일 현재에는 약 75.5%를 차지하고 있음(<표 2> 참조).
- 2003년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의 중동 진출 현황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국에 26개 사가 진출하여 총 87개의 프로젝트(182억 4,500만 달러)의 공사를 수행중이며, 총 1,732명의 우리 인력이 현지에 거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쟁 당사국인 이라크에서 수행중인 공사는 한 건도 없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쿠웨이트의 경우 국내 5개사가 10개의 공사를 수행중임.
- 쿠웨이트 진출 건설업체들의 경우 3월 10일경을 전후로 철수 명령을 내린 상태임. 또한, 발주처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단을 통보한 상태임²⁾.

<표 2> 중동지역 계약 실적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3.20
중동지역(A)	913.5	1,505.1	3,423.3	1,603.1	2,260.1	3,110.6	435.5
총 수주액(B)	14,032.4	4,055.3	9,188.8	5,433.2	4,354.9	6,125.9	577.0
A/B	6.5	37.1	37.3	29.5	51.9	50.8	75.5

자료: 해외건설협회(<http://www.icak.or.kr>).

이라크 전쟁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개관

- 이라크 전쟁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기 수주한 공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이는 다시 ① 전쟁의 발발로 인한 현장관련 비용(현장 철수비용,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 현장 관리 및 보전 비용, 전후 현장 복구 비용 등)과 ② 전쟁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둘째, 미수금 회수 가능성
 - 셋째, 해외건설 수주 관련 영향: 이는 다시 ① 이라크 복구 공사 관련 수주, ②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③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미수금 회수 가능성은 전쟁의 기간보다는 전쟁에서의 미국의 승리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여기에는 긍정적인 및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함.

2) 이는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지연이므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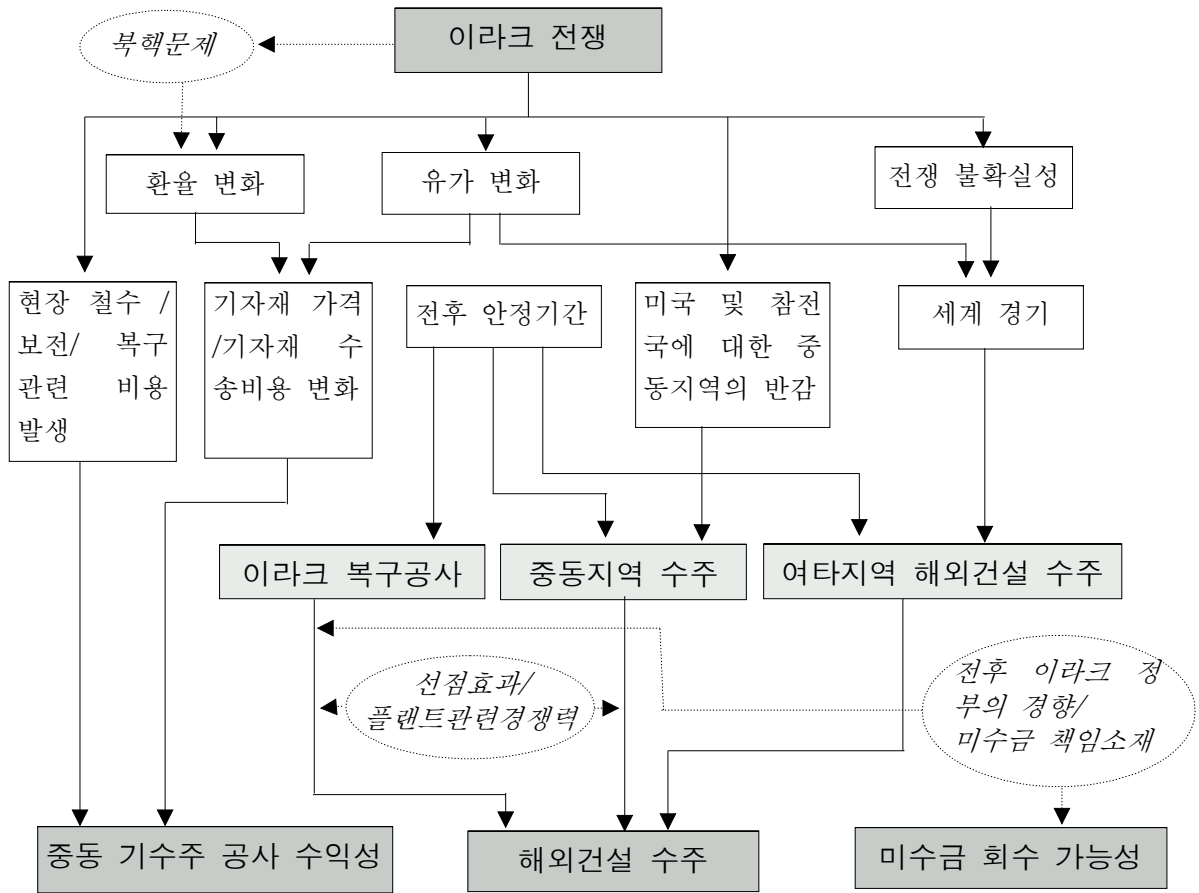
<표 3> 2003년 3월 4일 현재 중동지역 진출 현황

국가	내역	진출업체 수 (개사)	PJ수(개)	계약액 (백만달러)	시공잔액 (백만달러)	인력(명)
이란		5	12	4,047.0	1,654.5	224
요르단		1	1	7.5	1.5	1
사우디		16	24	1,171.1	253.5	137
카타르		5	4	953.3	103.2	85
쿠웨이트		5	10	1,434.5	432.9	203
UAE		8	19	2,031.0	445.5	196
오만		2	2	97.0	29.0	10
계		25	72	9,741.4	2,920.1	856
리비아		4	12	8,295.0	1,104.0	827
이집트		1	2	147.0	44.0	42
터키		1	1	62.0	58.0	7
계		4	15	8,504.0	1,206.0	876
총계(10개국)		26	87	18,245.4	4,126.0	1,732

자료: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전 후 이라크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미수금 회수 요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그러나, 현재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미수금은 대부분 걸프 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후세인 정권이 물러날 경우 미수금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중동지역 기 수주공사의 수익성과 전후 이라크 복구 공사를 포함, 중동지역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여부는 향후 전쟁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관련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임(<그림 2>참조).
- 따라서 이후에서는 향후 전개될 전쟁 양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이라크 전쟁이 중동 등 기수주 해외공사의 수익성과 전후 해외건설 수주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

<그림 2> 이라크 전쟁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주: ○ 안의 내용은 우리 나라 국가특유(country specific) 영향 요인임.

수익성 및 수주에 대한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 시나리오 1 >

- 전쟁이 초 단기 또는 1개월 내에 단기적으로 종결될 경우 해외건설은 일시적인 공기지연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따라서 중동지역 기 수주공사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장 철수 비용, 전쟁 중 현장 관리 및 장비 보전 비용, 전후 현장 복구 비용 등이 발생하고, 1991년 걸프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인 유가의 등락으로 인한 자재가 및 수송비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그 비용은 해외건설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만큼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전쟁 조기 종결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반면,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이라크식 강경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북핵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미국 지배력의 확대와 북핵문제의 가시화는 달러화 강세 속에 원화 절하를 초래하여 대외결제시 대규모의 외환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전쟁이 조기 종결될 경우 중동지역 및 아시아 개도국의 발주 예정 공사들이 예정대로 발주되는 한편, 이라크 내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미국자본이 중동지역에 흘러 들어가 이라크 및 중동 지역의 경제가 단기간 내에 안정을 찾을 것임. 따라서 전후 대규모의 이라크 복구 공사의 발주가 예상되어 중동지역의 절대적 공사 물량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戰前부터 미국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후원아래 병원, 학교, 도로, 공항, 해운 등의 재건과 운영 등 전후 이라크의 재건사업을 위해 미화 9억 달러에 이르는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런던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라크 재건비용이 미화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망명한 이라크의 반체제 인사인 아난 파차치 역시 전후 이라크 복구 첫해에 약 8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정도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님. 이러한 긍정 및 부정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이라크의 경우 걸프전 前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중동 진출 국가였음.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에 구축한 우호적인 이미지, 네트워크, 인맥 등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공사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①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반 건축 및 토목 공사들이 우선 발주되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주로 하는 플랜트 공사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며,
 - ② 더욱이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 플랜트 부문의 공사는 전쟁의 주도권을 가졌던 미국과 영국 건설업체들이 우선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³⁾되는 한편,
 - ③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플랜트 수주를 위한 EPC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의 종합적 경쟁력 -특히 E와 P부문의 경쟁력- 은 미국 및 영국 건설업체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⁴⁾
- 한편, 전쟁 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 확대, 이라크의 유전피해 최소화로 이라크의 원유시장 재진입 등으로 원유가 안정됨에 따라 전쟁으로 일시 침체된 세계 시장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조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려했던 아시아권의 피해가 최소화됨에 따라 중동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수주지역인 아시아 개도국에서의 공사 발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이에 따라 연초 설정한 금년도 해외건설 예상 수주 목표액인 65~70억 달러 달성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에서의 참여 정도에 따라 연초 전망치를 다소 상회하는 수주액 달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시나리오 2 >

- 전쟁 중 현장 및 장비에 대한 피해 증대로 전후 현장 복구 비용 증대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수송비 상승이 예상됨.
- 물론 이들 비용 중 일부는 에스컬레이션의 적용으로 원가에 산입될 것이나,

3) 프랑스의 전력장비회사 '시크맥스'의 고위 경영자 클로드 발루이는 미국과 영국계가 아닌 기업들이 이라크 재건때 기대할 있는 최선의 것들은 "이따끔씩 떨어지는 빵껍질"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함. 그는 이라크 내에서 유럽 방식에 따라 가동되고 있는 저 부가가치 사업에서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시크맥스는 이라크의 송전망이 지난 20년간 프랑스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유지돼왔기 때문에 전력 계약에서는 다소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라크가 모든 송전선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회사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돈벌이가 되는 석유 부문에서는 영국과 미국 기업들이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함(연합통신, 2003년 3월 22일자).

4) 일례로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도에는 중동에 진출한 44개 국가 중 수주실적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서서는 7위로 하락하였음.

상당부분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공사 대금과 연초 계획한 공사대금의 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기업 내 자금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의 증대는 금융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임.
-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대의 효과보다는 전쟁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이라크 주변 아랍 개도국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임. 또한, 전후 안정을 찾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라크 복구 공사의 발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중동지역에서의 기존 발주 예정 공사의 발주도 지연되어 중동지역의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것임.
- 터키와 이집트의 경우 관광수입의 감소로 재정 부담 가중되고, 요르단의 경우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임.
- 한편, 유가 급등으로 아시아의 비산유 개도국의 수출 둔화로 경기가 침체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됨. 또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 확산에 따른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은 세계 건설 투자를 감소시킬 것임.
- 이 경우 중동지역에서의 수주는 연초 예상액인 35~40억 달러를 크게 밑돌 것이며,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여타 지역에서의 수주 역시 감소하여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은 연초 수주 전망치에 크게 못미치는 55~6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 >

-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함.
- 전쟁이 중동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 철수 비용 및 복구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대금이 새로운 장기 미수금화하여 대규모의 貸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는 기업 내 자금계획의 차질을 불가피하게 할 것임.

- 대규모 대손의 발생은 해외건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높음.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건설의 대규모 이라크 미수금은 현대건설의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동지역의 원유 운송체계 동요, 이라크 유전파괴 등으로 유가가 배럴 당 40달러에 육박하고 불확실성이 만연됨에 따라 세계 경기가 크게 침체될 것임. 특히 선진국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중동 개도국과 아시아 비 산유개도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임.
- 유가 상승으로 아시아의 비산유국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대만의 경우 석유 소비의 90%, 인도 70%, 필리핀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세계 경기 침체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발주 예정 공사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해외건설 물량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함.
 - 나아가 전후 안정시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상당기간 동안 해외건설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면치 못할 것임.
 - 각 시나리오별로 해외건설, 특히 수익성과 수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중점 대응 사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나리오별로 해외건설의 수익성 및 수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강구해야할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 건설업체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비하여 전개하여야 할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4> 각 시나리오별 영향

	수익성	수주	시나리오별 중점 대응사항
시나리오 1	-현장 철수/보전/복구 비용 미미 -단기적으로 원화절하에 따른 외환손실은 미미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와 북핵위험에 따른 원화절하로 대외결제시 외환손실 발생 가능성 내재	-연초 목표액(65~70억 달러) 달성 가능, 이라크 복구공사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다소 증가 가능성 내재 -이라크 복구 공사 발주, 중동지역 절대 발주 물량 증가.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의 수주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중동지역 발주 증가 가능 -세계 건설시장 예년 수준 유지 가능	-단기적인 현장 보전 및 이라크 복구 공사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역량 집중 요망 -중장기적으로 외환손실 발생에 따른 대안 모색 필요
시나리오 2	-현장 보전 및 복구 비용, 자재비, 수송비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발생	-중동지역 수주 목표치에 크게 미달, 해외 건설 전체 수주 55~60억 달러에 그칠 전망 -이라크 복구 공사 지연 -중동지역 경기 침체, 발주 지연 -아시아 개도국 발주물량 감소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 -중동 외 지역, 특히 아시아 개도국의 물량 확보에 역량 집중 요망
시나리오 3	-기존 공사 대금의 장기미수금화로 대규모 대손 발생 -해외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유동성 경색 위험 -대외결제시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위험 내재	-해외건설 장기 침체 국면 돌입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발주 무기연기 및 취소 -해외건설 장기간 침체 국면 불가피	-유동성 최우선의 경영전략 전개 -위기관리 시스템 발동 -국내 수주물량 확보에 역량 집중 -환위험에 대비한 헷징방안 마련

- 원가보전을 위한 협상력 제고

- 전쟁이 조기 종결될 경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나, 전쟁이 상반기까지 지속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현장관리비용이나 전후 복구 비용, 전후 원자재 가격 상승, 기자재 수송 비용의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므로 대발주처 협상력 제고를 통해 이들 비용을 원가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미국 및 영국 건설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 향후 발주될 이라크 복구공사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합작공사의 경험이 있었던 미국 및 영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제휴 대상을 모색, 제휴선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우리 업체들은 이라크 등 기존의 중동지역에서의 경험 및 네트워크,

이미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저렴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원자재 가격 리스크 관리 및 Vendor 네트워크 확보
 - 전쟁이 1개월내 종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시나리오 2, 3) 유가 상승은 원자재 및 수송비의 상승을 불가피하게 함.
 -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 지역의 원자재 가격 리스트를 상시 관리하고 Vendor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환리스크와 대규모 貸損에 대비한 위기 경영체제 구축
 - 북핵문제에 따른 대내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한 원화 절하에 대비, 외환시장 및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기성금 회수시 결제 통화의 다양화를 통해 원화 및 달러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최소화함.
 - 대규모 대손에 대비 보수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함.
- 이 외에도 전쟁 기간에 관계없이 ① 전쟁 전개 양상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② 전쟁이 중장기화할 경우 해외 건설 지역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첫째, 향후 이라크 복구 공사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참여 폭이 증가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둘째, 경제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셋째,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건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할 대안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 SOC분야의 재정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 건설
경기의 동반 침체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최윤기**(부연구위원 – ykchoi@cerik.re.kr)